

2017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개요	1
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4
III. 한-뉴 교류 협력 관계	10
IV. 체재 안내 정보	12





I. 국가개요

1. 국가 개황

국 가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위 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 (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면 적	270,534 km ² (남한의 2.7배)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수 도	웰링턴(Wellington)
인 구	479만명 (2017년 2/4분기 기준)
주요도시 (인구)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민 족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안(11%),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 (3%) (2013)
언 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 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건 국 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국가원수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수 상	Jacinda Ardern (노동당, 2017년 10월 취임)
명목 GDP	US\$ 1,802억 (2016)
실질경제 성장률	3.1% (2016)
1인당GDP	US\$ 38,345 (2016)
실 업 율	5.2 % (2016)
물가상승률	1.3 % (2016)
화폐 단위	NZ Dollar(NZ\$)
환 율	US\$0.7/NZ\$1.00
외환 보유고	US\$ 219억 (2016년 12월)
산업 구조	1차산업 7.40%, 2차산업 20.66%, 3차산업 64.42%
교역 규모	수출: US\$ 336억 (2016) 수입: US\$ 344억 (2016)
대한 교역 규모	○ (대한)수입(2016) : US\$1,305백만 (3.4%) - 주요품목 :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철도차량, 건설중장비 등 ○ (대한)수출(2016) : US\$1,098백만 (-10.3%) - 주요품목 : 원목, 메탄올, 낙농품, 육류, 펄프 등



2. 뉴질랜드 역사

시기	주요 내용
1642	네덜란드인인 아벨 타스만이 최초로 발견
1769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의 뉴질랜드 측량 및 유럽인 이주 시작
1840.1	William Hobson 초대 총독, Bay of Islands에 정착
1840.2	Hobson 총독과 마오리족 대표 간에 Waitangi 조약 체결
1860-70	토지문제로 인한 마오리족과의 분쟁
1893	여성참정권 세계 최초 인정
1907.9	영국의 자치령(Dominion)
1912	여성 피선거권 부여
1950.6	한국전쟁 참전
1964	월남 파병
1997.7	Mike Moore 전총리 WTO 사무총장 선출
1999.9	제 7차 APEC 정상회의 개최 (오클랜드)
2001.3	북한과 수교
2011.11	국민당 총선 승리 (John Key 총리 연임)
2013.3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2014.9	국민당 총선 승리 (John Key 총리 3연임)
2015.3	한-뉴 FTA 정식 서명
2016.12	John Key 총리 사임 선언, Bill English 신임 총리 취임
2017.10	노동당 총선 승리, Jacinda Ardern 신임 총리 취임



3. 최근 정치 사회 동향

□ 신임총리 Jacinda Ardern의 행보

- 혼합비례대표제(MMP)에 따라 대표 야당인 노동당 집권
 - 2017년 9월 총선 결과 기존 집권당인 국민당이 최다 득표하였으나 의회 집권을 위한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하였음
 - 혼합비례대표제에 따라 대표 야당인 노동당은 뉴질랜드 제일당, 녹색당과 연합을 구성하여 2017년 10월 의회 집권함
 - 노동당의 리더인 Jacinda Ardern이 총리직을 맡게 되었으며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인 Winston Peters는 부총리, 외교부 장관을 겸직하게 됨
- Jacinda Ardern의 100일 계획
 -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사항들을 100일 계획으로 담아 빠른 속도로 법규 개정 및 공약 실천을 진행하고 있음
 - 초기 1년간의 대학 무상교육 제공, 학생수당 인상, 임대주택 단열 강화, 각종 사회 복지수당 인상 등 사회 복지 분야 개선에 초점을 맞춤
 -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신규 주택 공급으로 급속도로 뜨거워졌던 뉴질랜드 주택시장 완화 정책 펼침
 - 최저 임금 인상 정책 등 성장보다는 분배위주의 정책 기조를 보임
 -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주택 투기 붐은 그 원인을 외국인 투자로 지목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부분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분배와 복지 위주의 신임 정부
 - 경제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펼쳤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신규 정부는 분배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뉴질랜드 경제는 2018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신규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제 성장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강한 국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Winston Peters가 여당연합에 속함에 따라 해외투자 진출에는 부정적인 향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



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1. 주요 경제 지표 및 경제 전망

□ 안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

- 건설, 내수부분 호황으로 2017년 실질성장률은 2.8%로 예상
 - 기업투자 회복, 관광업 성장, 국제 유제품 가격 상승,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건설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
 - 정부의 이민법 강화로 인한 이민자 수 감소,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위험요인으로 분석됨

주요 경제지표

(단위 : US\$, %)

주요 지표	단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구	백만 명	443	456	465	475	482	488
명목 GDP	십억 달러	175	199	173	182	195	182
1인당 명목GDP	달러	32,740	36,785	37,285	38,331	39,464	40,683
실질성장률	%	2.5	2.8	3.2	3.6	2.8	2.5
실업률	%	6.4	5.4	5.4	5.1	5.0	4.8
소비자물가상승률	%	0.9	0.8	0.1	1.3	1.6	1.8
재정수지(GDP대비)	%	-4.3	-1.1	0.3	0.9	0.7	0.9
총수출	백만 달러	37,648	41,962	34,428	33,605	37,352	36,422
(對韓 수출)	"	1,258	1,462	1,097	1,098	미확인	미확인
총수입	"	37,595	41,000	35,786	35,534	38,743	38,565
(對韓 수입)	"	1,397	1,817	1,285	1,305	미확인	미확인
무역수지	백만 달러	54	961	-1,358	-1,929	-1,391	-2,143
경상수지	"	-6,887	-6,370	-5,501	-5,152	-5,563	-5,75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22	1.28	1.46	1.44	1.45	1.61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29,199	26,194	25,686	26,428	24,947	미확인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80,055	83,540	75,870	77,001	77,560	미확인

* 주: 2017년은 추정치, 2018년은 전망치 기입

* 자료원 : IMF, 뉴질랜드 중앙은행, ANZ 은행



2. 뉴질랜드 교역 현황

□ 뉴질랜드 대외 교역

○ 2017년 수출입 상승 반전

- 2017년 상반기 수출입은 상승 반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이상 성장한 366억 달러를 기록함
- 낙농(30% ↑), 육류(8% ↑), 원목(11% ↑)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
- 자동차(29% ↑), 기계(19% ↑), 석유화학(40% ↑) 수입 두 자리 수 이상 증가

○ 호주를 제치고 뉴질랜드 최대교역국 1위 자리 차지한 중국

- 인접 국가인 호주와의 교역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최대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함
- 對中 교역은 2015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낙농제품 및 목재 수출과 전자, 가구류 수입이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
- 호주,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이 교역 상위 국가이며 중국을 포함한 상위 10개국이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

뉴질랜드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USD 백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	2017(상반기)
수출 (증감률)	41,617 (5.51)	34,364 (-17.43)	33,756 (-1.76)	19,011 (10.14)
수입 (증감률)	42,507 (7.23)	36,571 (-13.96)	36,079 (-1.31)	17,583 (13.20)
교역량 (증감률)	84,124 (6.37)	70,935 (-15.68)	69,835 (-1.51)	36,594 (11.59)
무역수지	-836	-2,199	-2,323	1,427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 뉴질랜드 주요 수출입 대상국

- 일부 국가에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뉴질랜드
 - 10대 수출국이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수입국은 84%로 일부 국가에 수출입 의존도가 높음
 - 중국의 낙농, 원목 수요증가로 對중국 수출 금액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출금액 증가 견인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국가 (2017년 10월 누적)

(단위: NZ\$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	중국	13,832	19%
2	호주	13,380	18%
3	유럽연합	8,432	11%
4	미국	8,269	11%
5	일본	4,061	6%
6	대한민국	1,967	3%
7	인도	1,762	2%
8	싱가폴	1,374	2%
9	홍콩	1,290	2%
10	말레이시아	1,260	2%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국가 (2017년 10월 누적)

(단위: NZ\$ 백만, %)

순위	국가	수입금액	비중
1	유럽연합	12,318	18%
2	호주	11,719	17%
3	미국	8,003	12%
4	일본	3,976	6%
5	싱가폴	2,858	4%
6	태국	2,621	4%
7	대한민국	2,056	3%
8	UAE	2,035	3%
9	말레이시아	1,693	2%
10	인도네시아	863	1%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 對韓 교역동향

- '17년 10월 누적 기준, 한국의 대 뉴질랜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4.2% 증가
- (수출)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함
- (수입) 유기농 아기분유 등이 국내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보임에 따라 유제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9.8% 성장함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16		2017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05,120	3.4	1,063,036	-4.5
1	휘발유, 경유	408,015	2.1	358,240	-3.1
2	자동차	305,962	22.9	233,056	-4.6
3	철강	41,108	26.7	40,783	14.3
4	건설중장비	36,869	29.4	37,790	51.3
5	합성수지	24,578	-7.4	23,506	9.2
6	축전지	18,424	-1.9	17,790	13.1
7	질소 비료	6,592	-14.0	15,599	146.6
8	비금속 포장뚜껑	13,922	31.3	15,224	20.4
9	모니터	36,389	26.2	15,041	-56.6
10	화물차	36,239	32.6	13,467	-52.7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16		2017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098,265	-10.3	1,046,229	14.2
1	원목	315,116	11.1	278,746	8.5
2	알루미늄괴	57,522	156.9	76,603	81.2
3	쇠고기	89,383	15.6	72,247	-7.3
4	유제품	55,466	-12.8	69,029	45.2
5	조제식품	61,137	5.4	67,829	32.0
6	과일류	51,349	19.8	56,311	12.8
7	원유	12,101	-50.3	39,296	224.7
8	펄프	41,273	-31.7	32,746	-9.2
9	제재목	26,466	-19.3	24,937	12.2
10	변압기, 변환기	18,603	27.4	22,003	76.8

자료원 : 무역협회



3. 뉴질랜드 투자 현황

□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업 식품, 수산업 분야가 두드러짐
 - 한솔, 선창산업 등의 한국기업이 조림사업을 진행
 - 제조업에서는 오뚜기가 소고기가공제품 공장을 운영
 - 크라이스트처치지역에 동원, 주암산업 등 한국 원양선단 진출

□ 경쟁국(중국, 일본) 진출 동향

- 2008년 FTA를 체결한 중국이 그간 무역에 비해 다소 미미하였던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최근 낙농장, 유제품공장과 같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 현지 회사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현지 사업 노하우를 확보하는 등 활발한 투자 진출이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뉴질랜드 식품제조사 인수를 통한 투자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경쟁국 주요기업 뉴질랜드 투자진출 현황

(단위 : NZ\$ 억)

기업	진출현황	투자액
Shanghai Pengxin(중)	뉴질랜드내 12,000ha 규모 낙농장 인수	3
Haier(중)	뉴질랜드 유일의 가전사 Fisher & Paykel 인수	7
Yili Industrial(중)	뉴질랜드 남섬 티마루지역에 대형 유제품 제조공장 설립	4
Fu Wah(중)	오클랜드 Park Hyatt 호텔 신축	2
Asahi(일)	음료제조사 Flavoured Beverages Group 인수 음료제조사 Charle's Group 인수	15 13
Suntory(일)	음료제조사 Danone Holdings 인수	기밀
Japan Post(일)	호주-뉴질랜드 물류기업 Toll Holdings 인수	70
SMA(중)	뉴 최대 육류기업 Silver Fern Famrs 지분 50% 인수	3



4. 뉴질랜드 시장 특성

□ 테스트 베드 최적화된 시장

-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시장
 - 196개국의 213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
 -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세계 4위의 다민족 구성 도시로(Multicultural city) 선정
 - 다양한 국가, 민족 출신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 가능
 - * 화이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뉴질랜드를 Test Bed로 활용하고 있음
- 영어권 국가, 국제표준 활용
 - 영어권 국가 및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점을 활용하여 시장 테스트 및 향후 선진시장 진입하는 교두보로 활용 가능
 - * LG CNS는 웰링턴 시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주하여 해외시장 테스트 및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 말레이시아, 콜롬보 등으로 진출함

□ 기업 설립 및 운영 친화 정책

- 기업설립 및 운영용이
 - 효율성을 중시한 선진화된 기업 설립 등록 절차 운영
 - 2018년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쉬운 국가 1위 선정
 - 2017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선정한 국가경쟁력 13위 기록
 - 2015년 미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3위 기록
 - 2014년 미 Forbes 紙에서 선정한 'Best Country for Business' 3위 선정
- 기업 친화 정책
 -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인 28% 단일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간편한 세제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 없음
 - 오클랜드 시의 ATEED, 웰링턴 시의 WREDA 등 및 스타트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기관 운영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직원 고용 비용
 - * 노후 지원 프로그램(국민연금 개념) 3%, 건강 보험 1.15%, 고용세(고용보험 개념) 0%



III. 한-뉴 교류 협력 관계

1. 정치 및 외교 관계

□ 한-뉴 정치·외교 관계

- 1962년 3월 26일 한국-뉴질랜드 간 국교 수립
- 1973년 10월 1일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개설
- 1978년 6월 21일 한국-뉴질랜드 의원 친선 협회 결성
- 1979년 3월 13일 한국-뉴질랜드 경제인 연합회(KNZBC) 결성

주요 정부인사 상호방문 연혁

방 뉴		방 한	
시기	방문자	시기	방문자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	1993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2년 2월	백두진 국회의장	1996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7년 8월	정일권 국회의장	1999년 7월	Jenny Shipley 총리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	2001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0년 3월	박준규 국회의장	2003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2008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2010년 5월	John Key 총리
2014년 2월	강창희 국회의장	2012년 3월	John Key 총리
		2013년 7월	John Key 총리
		2015년 3월	John Key 총리



2. 뉴질랜드 내 한국 사회

□ 한국인 이민 사회

○ 초기 이민 사회 형성

- 1960~70년 대 원양어선 선원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이민 시작됨
- 1990년 대 초 뉴질랜드의 이민 문호가 개방되면서 한국인 이민자 유입
- 초기 이민자들은 편의점, 한국 식당,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
- 현재 약 30,000여명의 교민이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음

○ 한국 이민자의 뉴질랜드 사회 진출

- 1990년대 초기 이민자들은 편의점, 식당 등 한정된 산업에 종사하였으나 뉴질랜드 교육을 받은 1.5세대 및 2세대 이민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 2014년 한인 최초 여성국회의원으로 멜리사 리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2017년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여자골프 선수인 리디아고는 여자골프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뉴질랜드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대우받고 있음

□ 뉴질랜드 내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조림 산업 진출 기업

- 한솔, 선창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조림사업에 진출해 있음
- 최근 외국인 조림지 투자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투자진출에 애로사항 발생

○ 수산업 진출 기업

- 동원수산, 주암산업, 지오엠이 원양어선 사업에 진출해 있음
- 수산업 분야 진출은 남섬에 주로 분포해 있으며 현지 회사와 합자하여 공동 운영 또는 운영을 위임하는 형태가 대다수임

○ 서비스업 및 판매 법인

- 대한항공, 국민은행, LG CNS가 진출해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마케팅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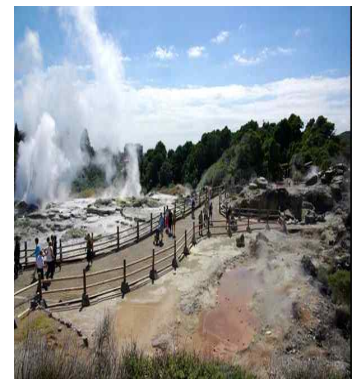
IV. 체재 안내 정보

1. 오클랜드 주변 주요 관광 명소

사진	주요 명소
	○ 스카이 타워(Sky Tower) - 2년 9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스카이 타워는 328m로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임 - 220m높이에 있는 스카이 데크(최고층)전망대는 이음새가 없는 유리창을 통해 360도의 오클랜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전망대에서 번지점프 같은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으며 2개의 레스토랑이 있어 오클랜드 시내 야경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음.
	○ 원 트리 힐(One Tree Hill) / 콘월공원(Cornwall Park) - 원 트리 힐을 둘러싼 콘월공원은 캠벨 경이 당시 뉴질랜드를 방문한 콘월 공작 부부를 위해 국가에 헌납한 땅으로, 도심지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목가적인 분위기임 - 마운트 이든(해발196m)과 마찬가지로 오클랜드 내에 있는 많은 사화산 중의 하나로 해발 183m의 산꼭대기 전망이 일품임
	○ 오클랜드 도메인(Auckland Domain) - 시내 동쪽에 있는 오클랜드 도메인은 총넓이 34만 km²의 넓은 공원이며, 도메인 안에는 테니스코트, 럭비, 크리켓 경기장 등이 있으며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 주말에는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 전쟁기념 박물관(War Memorial Museum) - 도메인 안쪽 높은 곳에 고딕 양식의 중후한 건물로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박물관임. 1층은 원주민인 마오리, 2층은 자연 과학에 관한 것들을 모아 전시 중이며 3층은 전쟁에 관한 전시관임



2. 북섬 주요 관광 명소

사진	주요 명소
	○ (테카포) 테카포(Tekapo), 푸카키(Pukaki) 호수 - (테카포 호수) 만년설과 호수, 선한목자의 교회로 유명. 호수는 빙하에 깎인 암석이 녹아 청록빛을 띠 - (푸카키 호수) 마운트 쿡의 설경과 하늘빛과 같은 호수빛이 절경을 이루는 곳
	○ (타우포) 호빗 마을(Hobbiton-Matamata) - 호빗 마을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이라는 영화 촬영을 위해 지어진 대규모 세트장임. 원래는 촬영 후에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청원으로 관광지로 바뀜 -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광할 수 없고 오직 가이드 투어만 가능함
	○ (타우포) 와이토모 동굴(Waitomo) - 동굴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개뿔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Glow Worm)’을 관광할 수 있음 -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개뿔벌레가 마치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과 같이 촘촘히 빛나 신기함을 더해 준다고 함
	○ (로토루아) 간혈천 테 푸이아(Te puia) - 지열지대와 마오리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 지열지대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이(최대 30m) 물을 뿜는 간혈천을 볼 수 있으며, 마오리족의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콘서트를 볼 수 있음



3. 오클랜드 무역관 일반 현황

□ 일반현황 총괄

무역관명	개설일자	법적지위	인원현황(명)		
			본사	현지	계
오클랜드	1973.10.01	공관부속기관	1	5	6

□ 법적 지위 현황

- 공식명칭
 - 한글 : 오클랜드무역관
 - 영문 : Korea Trade Centre
- 무역관 법적지위
 -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오클랜드 분관 부속기관 (1996.10.25.)

□ 관할 지역

-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 도서국 일대
 - 뉴질랜드, 피지(15. 6월 시드니로부터 관할지 변경), 통가, 서사모아, 타이티, 케르마텍, 쿡아일랜드, 마르케사 및 도서국

□ 오클랜드 무역관 인원 현황

성명	직위	업무	연락처
윤여필	관장	무역관 업무 총괄	64-21-741-322
김미경	팀장	전시회, 해외투자진출	64-21-232-3062
황세영	팀장	지사화전담	64-21-296-0768
나준상	과장	지사화전담	64-21-471-212
배선호	과장	시장 조사	64-21-050-1877
한명구	대리	지사화전담	64-21-847-799



4. 입국 및 체류 시 유의사항

□ 입국 시 유의사항

○ 비자 관련

-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
- 양국 간 무비자 협정으로 3개월 미만 체류 시 무비자 입국 가능

○ 반입 제한 물품

- 농산물, 육류 반입 시 신고 필수이며 미신고 적발 시 NZ\$ 400 벌금 부과
- 담배 50개피, 위스키 1.15L 3병, 와인 또는 맥주 4.5L가 반입 허용 한도

□ 체류 시 숙지 사항

○ 교통사고 유의

- 최근 외국 관광객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뉴질랜드는 한국의 운전방향과 반대이므로 체류 기간 중 운전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함
- 도로 횡단, 승하차 시 차량 진행방향이 다르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 인터넷 환경 및 전압

-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한국에 비해 느린 인터넷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 제공도 매우 드물어 관광객용 SIM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
- 전압은 230V~240V, 50Hz이며 3 PIN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음

○ 환전 및 팁 문화

- 평일 영업 시간에는 공항, 은행에서 환전 가능
- 도심 주요지역에는 사설 환전소등이 다수 분포해 있으나 별도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사전 확인 필수
- 팁 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택시, 호텔, 식당에서 팁 지급할 필요 없으나 일부 고급식당에서는 영수증 상 팁 금액을 기재하게끔 유도하는 곳이 있음



www.kotra.or.kr